

## Dr. Robert Vannoy, Kings, 강의 2

© 2012, Robert Vannoy 박사, Perry Phillips 박사 및 Ted Hildebrandt

오늘 내가 나열한 주석 읽기 외에도, 나는 연대기에 관한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더반 성경 그림 백과사전* J. 바튼 페인. 할당하는 나의 목적은 매우 복잡한 자료인 세부 사항에 대해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연대기적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의 종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문제, 특히 그가 가입 연도 데이트 또는 비 가입 연도 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섹션과 봄 시작이든 가을 시작이든 관계없이 연도가 시작될 때 공동 섭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 종류의 일들은 대부분의 연대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하는 또 다른 사항은 절대 날짜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 기사의 앞부분에서 Payne이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및 이집트 연대기에는 아시리아 기록에서 발생하는 일이 성경 자료에서 발생하는 일과 연결될 수 있는 특정 지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 기록을 비교할 수 있고 아시리아 기록이 과거로 돌아가 일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날짜가 정확하다는 것을 꽤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점을 제공합니다. 일식을 사용하면 연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B.C. 841년과 같이 성경 연대기의 특정 시점에서 고정된 날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후가 살만에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칠 때. 그것은 아시리아 기록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서 기록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고정된 지점을 얻으면 그 지점에서 앞뒤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동시 통치가 있기 때문에 예후의 시대보다 앞선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거나 예후의 시대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러한 고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연대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B.C. 853년 카르카르 전투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아합이 관여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고정점을 제공합니다.

이 예에서 나의 목적은 당신에게 연대기에 대한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중 일부의 복잡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스터하고 싶다면 인생의 상당 부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열왕기 상하의 개요를 가지고 본문 자체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같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숫자 I인 솔로몬 치하의 연합왕국을 좀 더 자세하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하의 나머지 자료 대부분에 적용됩니다. 나는 솔로몬에 관한 자료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나는 솔로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다른 어떤 부분보다 엘리야와 아합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A"는 "입문 자료"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개요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개의 하위 항목이 있습니다. "1"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 열왕기상 1:1-2:12"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제 해당 섹션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해보셨고 그에 대한 해설도 보셨으니 1:1~2:12의 기본적인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섹션에서 기본적인 질문은 누가 David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입니다. 해당 섹션에 표시되는 질문입니다. 이 섹션에서 새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전에 다루었던 질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많았지만 주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의 또 다른 아들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은 사실상 한 권인 사무엘상하의 절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가 영원히 지속될 왕조를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의 그 약속의 맥락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에서 날 네 후손이 네 뒤를 이을 것이요 내가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것을 역대상 22장 8-10절과 비교해 보면, “너희는 많은 피를 흘리고 많은 전쟁을 치렀다.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러나 네게 아들이 있으니 그는 평화롭고 안식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 될 것이며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자니라.” 보시다시피,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사건이 일어나기 오래 전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선포하심으로써 그것은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라는 것이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는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25절입니다. 이것은 12장에서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다윗과 밋새바 사건 이후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으므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디디야”는 “여호와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는 다윗의 후계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그 특별한 특권이 솔로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마도 당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맏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연계에서 장자가 권리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이 성경에서 다소 흔한 종류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약속된 씨에 관한 한 약속된 자, 약속의 제보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고,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장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은 이새의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새의 집에 갔을 때를 기억하라. 그가 이새의 모든 아들들을 그보다 앞서 오게 하였을 때, 형들은 다윗을 사무엘 앞으로 데려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바로 주님께서 택하신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런 종류의 예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의 구속 계획의 성취가 인간의 권리, 능력 또는 능력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이자 구속 사역을 추진하는 것이 그의 주권적 성품이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에서와 이삭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반하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에서는 그 축복을 원했고 이삭은 그것을 그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 모든 음모의 한가운데서 야곱을 위한 축복이 야곱에게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열왕기상 1장에는 여호와께서 후계자를 지정하셨지만 아도니야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열왕기상에서 처음 몇 장에 나오는 질문은 다윗의 계승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고려 사항이 우세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야는 다윗의 남아 있는 장남이거나 적어도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압살롬과 암논이 죽은 것을 기억합니다. 암논은 그의 누이 다말을 범했고 그 때문에 압살롬이 그를 죽였습니다. 후에 압살롬은 유배되어 갔다가 돌아와서 다윗에 대한 반역을 선동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반란의 여파로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암논과 압살롬은 둘 다 죽었습니다.

아도니야는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오르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없이 솔로몬이 지명된 후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학깃의 어머니 아도니야가 스스로 나서서 이르되 내가 왕이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왕위를 찬탈하려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는 본질적으로 혁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내세운 다음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이 모든 계획을 세우는 아도니야 사이의 진정한 대조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와 다윗 사이에 실제적인 대조를 봅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왕좌를 차지하도록 지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님의 손에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쁨 부음 받은 자를 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야가 다른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음모와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왕좌를 찾습니다.

7절에 “아도니야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의논하니라”고 했습니다. 요압은 군사령관이었고 아비아달은 물론 제사장이었으며 그들은 아도니야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베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경호대는 아도니야에게 합세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야는 엔로겔 근처 소헬렛 돌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왕의 모든 형제와 왕의 아들들과 유다 모든 왕의 신하를 청하되 선지자 나단과 그의 동생 솔로몬의 경호대 브나야는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아도니야는 이 계획에 참여할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을 배반하지 않고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을 모아 자신을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7절에서 요압과 아비아달의 도움을 구하되 일부러 나단이나 브나야나 특위대나 그의 동생 솔로몬을 청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혁명에 종교적 승인을 내리도록 사제를 초청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이것을 종교적 제재로 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여(9절) “그가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종교적 제재를 사용하려고 시도하며, 그것이 주님의 표현된 뜻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그의 혁명과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부터 1장은 두 사람의 대화 네 편을 담고 있다. 첫 번째는 나단과 밧세바 사이의 11-14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다윗 왕에게 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이 주의 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느냐?’ 당신이 아직 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내가 들어가서 당신의 말을 확증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밧세바에게 아도니야가 그녀와 그녀의 아들 모두에게 닥친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11-14절 말씀입니다.

그 시대와 아마도 거의 모든 시대에 왕좌 찬탈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모든 왕위 주장자를 살해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밧세바와 솔로몬의 생명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밧세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윗에게 알리라고 조언합니다. 그것이 11-14절의 첫 번째 대화입니다.

두 번째는 밧세바와 다윗 사이의 1장 15-21절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드는 그의 방으로 나이트 왕을 보러 갔다. 밧세바는 몸을 굽혀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물었다.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는데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을 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주목하여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것을 알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열조와 함께 안식하시는 날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윗에게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겠다고

맹세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에게 아도니야의 혁명과 그가 특히 요압과 아비아달에게서 받은 지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대화는 22-27절에서 나단과 다윗 사이에 있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께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나단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아도니야가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 왕의 위에 앉을 것을 왕이 선포하셨나이까 오늘 그는 내려가서 많은 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왕의 모든 아들들과 군대 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초대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도니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아도니야 왕 만세!”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내 주 왕의 뒤를 이어 누가 내 주 왕의 위에 앉을 것을 그의 신하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행하신 일이오이까?” 나단이 들어오고, 내 생각에 그것은 이 문제에 접근하는 다소 외교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함께 그는 아도니야가 왕으로 선포된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명하고, 말하자면 그가 이것을 승인했는지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대화는 다윗과 밋세바 사이의 28-31절이며,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왕이 맹세하여 가로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제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한 것을 오늘 반드시 이행하리라 그가 나를 이어 내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밋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대신하여 다스리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독과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칩니다. 국민에게 알립니다.

그 소식이 다윗 자신의 강력한 지원으로 아도니야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혁명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가서 제단으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렘 49절에 “이에 아도니야의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흠어지니라. 그러나 아도니야는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가서 제단 뿌를 잡았습니다. . 후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야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제단 뿌를 붙들고자 하매 솔로몬 왕이 오늘 내게 맹세하여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니 솔로몬이 이르되 , '만일 그가 현자임을 나타내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2장 초반부인 처음 4절에는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명령이 길지는 않지만 꽤 의미심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네 구절은 진정한 언약적 왕의 프로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곧 온 땅의 길을 가겠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어른이 되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례와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리라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의 사는 것을 살피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앞에서 성실히 행하면 네게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보좌에.”

” 나는 당신이 그것을 진정한 언약적 왕의 프로필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정부의 고삐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솔로몬에 대한 정치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의 책임이 무엇인지, 진정한 언약의 왕이 어떠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 개념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무엘상 8-12장에 나오는 왕권의 부상에 관한 구약 역사 과정과 관련하여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여기 열왕기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왕권에 대한 뚜렷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를 기억한다면 그들에게는 인간 왕이 없었습니다. 왕궁이 없었습니다. 왕의 보좌는 없었고 오히려 언약궤를 모신 장막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언약궤는 야훼의 보좌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시 성막에 보관되어 있던 법궤 위의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셨습니다. 사실 법궤는 이스라엘의 신성한 왕이신 야훼의 보좌였으며 주변의 어떤 나라들과도 달랐습니다. 왕궁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왕궁이 없고 이 장막과 궤가 그 안에 있고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이시니라 그 마련의 배후에 있는 생각은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언약의 명령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여기서 야훼를 신성한 왕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개별적으로 언약의 의무에 순종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이는 백성 사이의 질서와 연합, 그리고 사회 전반의 질서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들은 야훼의 왕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의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떠나 반복적으로 여호와와 왕권을 부인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압제와 회개와 구원의 사사 시대에 그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에 이르면 책의 초반부에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고 암몬 사람들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위협을 가하면서 주위 나라들처럼 전쟁을 지휘하고 싸울 왕이 없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8장에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인간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와 왕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항의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왕을 주지만, 그렇게 할 때 그는 이스라엘에서 왕의 역할을 신중하게 정의하여 여호와의 지속적인 왕권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 왕권이 확립되었을 때 인간 왕을 자신의 통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왕이 아닙니다. 부섭점으로서의 왕이다.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도구가 될 왕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에게 야훼가 진정한 왕이시며 인간 왕이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며 여호와의 율법의 언약적 요구 사항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의 길로 행하여 그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왕인 사울과 함께 그는 선지자, 특히 사무엘의 말을 기꺼이 듣지 않으려는 것으로 금방 나타납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에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13장에 도착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5장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멸하라는 주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되는 것을 거절당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뒤따랐고, 물론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에 논의한 대로 언약적 왕의 이상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인물로 묘사되지만 그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이익과 왕권을 언약의 진정한 왕이 되는 책임보다 우선시한 때가 있었고, 그의 삶에서 그것이 아주 분명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요점은 그가 자신의 길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의 도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에서 벗어났을 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왕권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상을 지켰고, 이스라엘에 있어야 할 왕권의 본질에 대해 분명한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열왕기상 2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임종 시 솔로몬에게 그 통찰력을 이 구절들에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9:10과 그 다음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10과 다음은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다윗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맥은 다르지만 그가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기 직전에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시 21분입니다. 다윗의 죽음은 29:26에 있다.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영화가 다 주의 것이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니이다 주님, 왕국이 당신 것입니다. 당신은 전반적으로 머리로 고귀합니다. 부와 명예는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의 통치자입니다. 당신의 손에는 모든 사람을 높이고 힘을 주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당신의 손에서 나온 것만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과 마찬가지로 나그네와 나그네입니다. 지상에서의 우리의 나날은 희망이 없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모든 풍족한 것을 주의 손에서 얻었사오며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나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모든 것을 나는 기꺼이 정직한 의도로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린 것을 내가 기쁘게 보았나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마음을 주의 백성의 마음에 영원히 간직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 충성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전심을 다하여 주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내가 준용한 궁궐을 건축하기 위하여 모든 일에 힘쓰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 주의 왕권에 종속된 인간 왕의 통치, 그리고 인간 왕이 주님께 헌신된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성.

19절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전심을 다하여 주의 명령을 지키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의 요구를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례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지어다”라고 말했던 열왕기상 2장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처음 4절에서는 왕권이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전됨에 따라 다윗의 정치적 유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언제 이스라엘의 왕이 선한 왕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야훼의 왕권에 복종하고 야훼의 왕권을 섬길 때에만 그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걸을 때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마지막 분석에서 진정한 왕에 대한 다윗의 프로필과 완전히 일치하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왕은 단 한 명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윗도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니다. 결국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야 언약적 왕권의 이상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상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 모두, 다윗과 솔로몬이 목록의 최상위에 있지만 선한 왕들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모두 이상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마침내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참 언약의 왕이 의도하신 대로 의와 공의의 온전함과 완전함으로 다스릴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여러 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의 관련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것은 구속사적 관점이다. 당신이 그것을 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문맥에 넣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구속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왕권 제도는 확실히 구속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시며, 이 왕들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왕들의 프로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왕들과 우리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들의 통치에서 야훼의 왕권을 반영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모든 명령을 요구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모든 것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킬 때에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반영하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제 그것은 단지 부수적인 의견입니다.

2장 5-1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왕들이 그들의 통치에서 야훼의 왕권을 반영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왕권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 주변의 세상. 그러나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에 복종할 때 우리에게만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 명령 중 일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매우 중요한 구속적, 역사적 관점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 이 모든 왕들은 그리스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앞을 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상을 성취하실 것이지만, 나에게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왕들에게 반영되어야 하는 야훼의 통치라는 원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표를 볼 때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분을 가리키는 사무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서 우리는 주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읽으며, 그것은 신약성경에서 선택되어 궁극적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세보다 크십니다. 따라서 확실히 선지자의 계열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는 다른 계급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아론의 혈통을 가지지 않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보하고 대표하는 제사장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모든 직분을 결합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5절부터 12절까지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세 사람을 다루라고 지시합니다. 그들은 요압, 바르실래, 시므이입니다. 이 세 사람 중 바르실래는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도망칠 때 어려운 시기에 다윗을 도와준 충성심에 대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압과 시므이는 다윗에 대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다윗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의 왕권에 대한 염려에서 좋은 기반에서 시작할 것을 솔로몬에게 지시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5절에 요압에 대하여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아나니 평시에도 전쟁할 때와 같이 피를 흘려 그들을 죽이니 그 피로 그의 허리띠와 발에 신은 신에 더럽혔더라 네 지혜대로 그를 처리하되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가 말하는 것은 꽤 분명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는데, 전쟁 중에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해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다윗의 명령에 반하여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혁명 이후에 압살롬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요압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지시는 요압의 목숨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민수기 35:30-34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죽어 마땅한 살인자의 생명을 위한 몸값을 받지 마십시오.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도피하여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의 땅으로 돌아가 살게 하지 말라. 너희가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 흘림이 땅을 더럽히니 피 흘린 자의 피 외에는 피 흘린 땅을 속죄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거하는 땅과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민수기는 유혈 사태가 땅을 오염시킨다고 말합니다.

사실 구약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더럽힌다고 하는 말이 세 가지 있습니다. 1) 유혈은 하나,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삶과 불법적인 삶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 성적 부도덕은 또 다른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을 보십시오. 레위기 18장 전체가 음행과 음행에 관한 내용인데 25절을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려는 민족들도 이렇게 더러워졌느니라. 그 땅도 더럽혀졌다. 그래서 내가 그 죄 때문에 그것을 벌했고 그 땅은 그 주민을 토해냈다.” 27절, “너희보다 먼저 그 땅에 거주하던 백성이 이 모든 일을 행하여 그 땅이 더러워졌느니라.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그래서 유혈은 성적 부도덕과 함께 땅을 더럽힙니다.

세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예레미야 3:9: “이스라엘의 음행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그 땅을 더럽히고 돌과 나무로 간음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걸치레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땅을 더럽히고 돌과 나무로 간음했으며 에스겔 36장 17-18절은 비슷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의 여담이지만 여기서 요점은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이 그 땅을 더럽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말하는 것은 요압의 유혈죄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의 통치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다윗 시대에 그 예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21장에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맺은 조약을 어기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이 있었고,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이 깨졌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고 그 결과 3년 동안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요압에 관한 이 명령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10분 쉬자.

Jeff Brown 작성

러프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Perry Phillips 박사가 다시 설명함